



오록도 칼럼



공 기 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수필가

올해의 봄은 유난히 흐린 날이 많았다. 현충일에 형제들과 함께 큰 형님 공영화 장군이 영면해 있는 대전 현충원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뒤로 미루었다. 한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을 취소했었다. 5월 초, 남구청 영상팀과 함께 유엔기념공원의 도슨트 수로 앞에서 영국군 참전용사인 제임스 그룬디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는 1950년 12월에 18세 나이로 낙동강 전투에 참여하여 생사를

넘나들며 전사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다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 축구선수, 경찰관으로 지내며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전우들을 참배한 후 해마다 자비로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곳 전우들의 곁에 묻히는 것이다.

남구 곳곳에 전쟁 상흔 남아

82세 고령의 나이로 척추암으로 앓고 있는 그는 올해도 한국을 찾았다. 예문여고 강당에서 그가 겪었던 6·25전쟁에 대해 강연을 하고서 우리들의 인터뷰 요청에 쾌히 응한 것이다.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로, 때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머로 마무리하는 그가 큰형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내에도 꼭 이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간청하니,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나더러 그의 고향인 영국 맨체스터로 오면 대환영하겠다고.

그와 헤어지면서 현충일에 이곳에 묻혀 있는 그의 사촌형인 매킨슨의 묘소에 참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고 집에 놀러온 딸네와 아내와 함께 유엔기념공원으로 갔다. 비가 쏟아지는 통에 그의 형의 묘소를 찾지 못해 영국군기념비 앞에 헌화하고 돌아왔다. 초등학교 2학년인 외손녀에게는 큰 추억거리로 남을 것이다.

부산의 역사 현장은 많이 사라졌거나 훼손되어 있다. 과연 이대로 두면 얼마나 더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난 4월 어느 날 부산발전연구원 직원들과 부경대학교 안에 있는 위커하우스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위커하우스는 위커 중장이 위커라인(Walk Line)을 고수해 인천산록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작전본부다. 대화를 나누다 다 함께 우암동

에 가서 해방과 한국전쟁, 산업화의 부산물로 남은 서민들의 주택 현장을 다 볼 수 있는 소마사를 지금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피란수도였던 부산에 남아있는 역사적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s)에 등재하기 위해 최근 부산시장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 아래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부산에 남아있는 근대의 유산 18개소 25건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데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 특히 남구에 유엔기념공원, 우암동 귀환동포 및 피란민 주거시설, 제1 등대, 위커하우스 4건이 포함되어 있다.

‘피란 유산’ 인류 유산되길

그런디와 만난 후에 ‘부산의 역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하게 부산은 개항되기 전까지 별 볼일 없는 곳이었다. 신라, 고려, 조선 때에 수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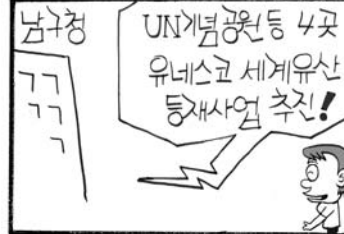
멀리 떨어진 변방이어서 서울, 대구, 경주 등에 비해 화려한 문화를 남기지도 못하고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도시였다. 그래도 이곳은 해방이 되어 일본, 중국 등지에서 귀환동포들이 귀국했으나 집도 없는 그들을 수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피란민들까지 수용해 사람들을 삼림 피란수도이다. 부산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출생과 근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 품었던 통이 큰 도시였다. 그 결과로 생긴 도심 곳곳의 산통선까지 좁은 골목길, 판잣집과 가난을 버릴 수 없어 ‘산복도로 스토리텔링’ 속의 그때 그 시절을 애가하며 살고 있다.

부산은 개항 이후 해방과 한국전쟁을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과 세계를 품었던 위대한 도시다. 4·19민주혁명, 부마항쟁 등을 거치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부산아, 네가 있었기에 이 민족이 살았고 이만한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었구나!’. 앞으로 슬픔으로 점철된 임시수도기념관, 유엔기념공원, 소마 등 부산에 남은 옛 흔적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유산으로 남았으면 하는 염원이 속히 이뤄졌으면 한다.



<245>

채 규 중



■ 임찬수의 인생을 바꾸는 말말말 <3> 설득의 비법(1)

상대 의견 긍정 후 내 의견 피력을

주위 사람들이 본인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 물음에 ‘그래요’라는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설득을 잘할 수 있는 기본기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식과 상식을 결비해서 사실과 타당성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데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과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면 평상시 대화 습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 해보고 상대를 쉽게 설득하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화법을 지금부터 배워 보자.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영어 교재를 파는 아저씨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장사를 잡하는 상인과 그렇지 않은 상인은 화법이 다르다. 장사를 못하는 상인은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자신의 말을 하지만 노련한 상인은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말을 한다.

가령 학생이 “아저씨,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구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지 영어 테이프를 듣는다고 영어를 잘하겠어요?”라고 물으면 미숙한 장사꾼은 바로 아이의 말을 부정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슨 소리야? 비싼 돈 주고 왜 영어구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럴 필요 없이 이 영어 테이프만 들으면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어. 이 테이프는~” 하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자신의 말이 처음부터 부정 당해 감정이 상해 뒤틀림이 타당하다고 해도 경청하지 않게 된다. 결국 영어 테이프를 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노련한 장사꾼은 같은 질문에 절대 부정하지 않고 바로 긍정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와~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네 말처럼 영어를 잘하려면 영국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해! 영어 테이프 듣는다고 영어가 잘되겠니? 하지만 이 영어 테이프는 말야아~” 하면서 상대의 말을 먼저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이후 내용을 풀어나간다. 자신의 말을 존중받은 아이는 상인의 말에 귀 기울임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당신은 지금도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고~”라며 상대의 말을 먼저 부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대화 습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고객님이 뭘까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김 대리가 왜 틀렸는지 내가 말 해줄게” “아참 그게 아니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본인 말이 맞다 할지라도 먼저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상대는 감정이 동요돼 경청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상대는 당신의 말이 논리 여하를 떠나 다음부터는 당신과 대화하기 싫어져 설득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부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타당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먼저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겠네”라고 인정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키워보자.

임찬수신스피치학원 원장



산타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6. 7.>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약천산악회	7/20(수)	지리산 뱀사골계곡	010-4655-4370
	백호산악회	7/13(수)	남평 구룡계곡	010-5621-4007
용호동	연포산악회	7/10(일)	산청 대원사 계곡	010-3832-5971
	한울림산악회	7/10(일)	포천 백운계곡	010-9328-6091
	해월산악회	7/17(일)	함양 칠성계곡	010-3580-7558
	신선산악회	7/10(일)	지리산 뱀사골계곡	010-6520-0167
	금간산악회	7/3(일)	괴산 갈오봉 선유동계곡	010-3865-9051
용당동	청산산악회	7/3(일)	진안 덕태산	011-864-0442
	환경산악회	7/3(일)	지리산 뱀사골계곡	010-3575-3448
감만동	용신산악회	7/10(일)	청양 칠갑산	010-4657-7051
	한마음산악회	7/10(일)	울산 주암계곡	010-9324-3424
우암동	부산산악회	7/3(일)	청도 문복산 계사피계곡	010-7223-2277
	여남산악회	7/10(일)	문경 도장산	010-4553-6615
문현동	용마산악회	7/10(일)	지리산 뱀사골계곡	010-2692-1170
	글로벌산악회	7/17(일)	함양 선비문화탐방길 1코스	010-8287-1192
문현동	우일산악회	7/17(일)	팔공산 치산계곡	010-7520-6666
	우일산악회	7/3(일)	지리산 칠성계곡	010-3557-2847
문현동	산누리산악회	7/3(일)	괴산 쌍곡계곡	010-4035-3432
	3천산악회	7/17(일)	포항 내연산 계곡	010-5189-6847
문현동	원부리산악회	7/17(일)	남평 구룡계곡	010-4564-7769
	문현2산악회	7/10(일)	괴산 도명산 회양계곡	010-3178-3065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시 한줄, 서정 한 줄

반은 그림을 반은 기다림

〈류수인〉

한 평생이 그런 것 같다

반은 그림을

반은 기다림

그렇게 살면서

거쳐 가는 것이 있다면

반은 기쁨

반은 슬픔



도 재산이다’이다. 시집은 화창한

춘삼월에 발표했는데 시집이 품은

시들은 저녁노을 곁에 깔린 늦가을

을 연상케 한다. 읽다보면 애뜻하고

가슴 한 구석이 쨍해 온다. 핸드북

처럼 손에 꼭 잡히는 시집은 여인

이자 시인의 눈으로 써 내려간 아

흔 개의 주옥같은 시들로 채워졌

다. 누구나 겪었을 법한 생활의 편

린을 관조적으로 풀어놓아 쉬이 읽

히도 한지에 먹물 베풀 여운이 길

게 번진다.

오록도 시낭

송문학회 회장

인 류수인 시

인이 9번째 시

집을 냈다. 깊은

연륜과 성찰이

갈 무리된 시집의

제목은 ‘그리움

도 재산이다’이다. 시집은 화창한

춘삼월에 발표했는데 시집이 품은

시들은 저녁노을 곁에 깔린 늦가을

을 연상케 한다. 읽다보면 애뜻하고

가슴 한 구석이 쨍해 온다. 핸드북

처럼 손에 꼭 잡히는 시집은 여인

이자 시인의 눈으로 써 내려간 아

흔 개의 주옥같은 시들로 채워졌

다. 누구나 겪었을 법한 생활의 편

린을 관조적으로 풀어놓아 쉬이 읽

히도 한지에 먹물 베풀 여운이 길

게 번진다.

(전략)친구여!/나 죽거든들라 내 무덤에 오시여/시 한줄 써 주오/눈으로 쓰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써 주오/‘친구여 나 죽거든들라’ 일부)

할떡거리며 달렸지만/여기까지다/승자는 되지 못했어도/패자는 면한 셈이다/누군가의 언덕은 되어주지 못해도/세 가라줄 우산은 뭘 수 있어/신께 감사하고/내게 감사한다. (‘최종화’ 전문)

전북 익산 출신의 시인은 딱 스무 해 전 월간 한국시에서 신인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했다. 지천명을 넘겨 시단에 발을 들였어도 웅성한 필력과 깊은 것이 있는 시어로 급세 부산 문단에 큰 족적을 남겼다. 오랜 남구 주민으로 유엔평화공원 가을 국화전 시회에 매년 주민들을 위해 자작시를 들려주기도 한다.



대연5동 신생아들에게 백일떡을 나눠주는 홍명숙(오른쪽) 씨 부부.

“마을에 아기 울음

들리면 보람이죠”

무료 ‘백일떡’ 나눠주는 홍명숙씨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즐겁고 보람이에요.”

못골골목시장 인근 떡가게 ‘떡사랑’의 홍명숙 사장은 사나흘에 한번씩 아기 백일떡을 손수 만든다. 정성을 듬뿍 담았지만 돈은 받지 않는다. 홍 사장은 올초부터 대연5동 주민센터와 함께 대연5동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에게 백일떡을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백일떡 한 개 가격은 3만 원이다. 주민센터 측이 생후 3개월이 되기 일주일 전에 아기 부모에게 쿠폰을 교부하면 부모가 홍 사장 가게에 들려 떡을 받아간다. 쿠폰 발급 이후 첫 백일이 도래한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30여개가 나왔다. 대연5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홍 사장은 10년 전부터 남편과 떡 가게를 꾸려 가고 있다. 다른 떡에 비해 일손이 많이 가지지만 홍 사장은 “그저 아이들이 좋아 시작됐다”고 웃는다.

한편 대연5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조명수)도 신생아에게 기저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올초부터 지난 22일까지 모두 42개(63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전달했다.

백일떡과 기저귀는 저출산문제를 따뜻한 이웃의 관심으로 풀고 마을의 활기를 주기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7월 1일(금) 나눔장터

- 행사: 7. 1. (금) 오전 10시~오후 4시(※ 우천시 취소)
- 참가신청: 6월 27. (월) 오전 9시부터 전화, 방문 신청순 마감
- 문의: 607-4451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6.6.22.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용호동	경리사무원	1명	16.06.22~채용시	월 162만원	647-3656
추한성종합관리	대연동	아파트관리소장	1명	16.06.22~채용시	월 156만원	505-6547
추선츄리스포츠	대연동	빙난방 기사	1명	16.06.22~채용시	월 180만원	610-1111
추한탐	대연동	영업관리	0명	16.06.22~06.29	회사내규	930-0212
추라이트비트	용당동	전기부품조립원	1명	16.06.22~07.18	월 150만원	070-4707-1378
추리더원	감만동	크레인운전원	1명	16.06.22~07.05	월 200만원	640-5904
추시티캵	문현동	경리사무원	1명	16.06.22~채용시	월 150만원	630-9349
추범양버스	대연동	버스운전원	2명	16.06.21~채용시	월 180만원	611-1774
추중로전기	대연동	전기공사기술원(대졸)	1명	16.06.21~07.04	월 165만원	611-2233
마미캵	남구 일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10명	16.4.27~상시모집	일 62,000원	205-3579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남구도서관 7월 영화상영

영화제목	장 르	상영일자	상영시간 및 장소
개를 흘리는 완벽한 방법	드라마, 가족	7. 3(일)	매주 일 오후2시, 남구도서관 2층 시청각실
슈퍼미니	애니메이션, 모험	7.10(일)	
초원의 왕 도제	애니메이션, 모험	7.17(일)	
오즈의 마법사—돌아온 도로시	애니메이션, 판타지	7.24(일)	
피마 니콜라의 여름방학	코미디	7.31(일)	

남구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명	기 간	대상	모집인원	접수기간
사회, 문화로 떠나는 NIE 여행	7.26.~8.18. (8회) 화, 목 10:00~12:00	초등 3~4	20명	7.5(화) 10시부터 인터넷 접수
생각이 자라는 그림책 여행	7.27.~8.19. (8회) 수, 금 10:00~12:00	초등 1~2	20명	
책과 함께 읽고 쓰는 통합논술	7.27.~8.19. (8회) 수, 금 14:00~16:00	초등 5~6	20명	
사고력을 키우는 중등 통합논술	8.6.~8.27. (4회) 토 11:00~13:00	중학생	20명	
하브루타 정의융합 건축교실 I	8.6.~8.27. (4회) 토 14:00~15:30	초등 1~3	15명	7.5(화) 14시부터 인터넷 접수
하브루타 정의융합 건축교실 II	8.6.~8.27. (4회) 토 15:40~17:10	초등 4~6	15명	
동화로 만나는 클레이 세상	8.3.~8.24(4회) 수 16:30~18:30	초등 1~2	20명	

※ 자세한 사항 : 남구 도서관홈페이지 또는 열람실 문의 ☎607-6561)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